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과
적절성 연구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이지윤

국문초록

가계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무행동을 수행하고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가계의 재무적 의사결정의 시작은 재무목표의 설정이라는 점에서 가계의 재무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계가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가계가 재무상태를 개선하는데 바람직한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목표를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가계가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무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틀로써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와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문제 2]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평가에 기초하여 가계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재무목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가계, 즉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가 설정해야 할 재무목표를 구체화하고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재무상태평가지표가 유용한 연구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무목표 설정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를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하는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는 주로 단기적이고 재무적 안정을 위한 재무목표보다 재무적 성장을 위한 재무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적 안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계의 경우 무조건 재무적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재 재무상태를 유지·개선하기 위한 재무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계 특성별로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과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 성별 및 18세 이하의 자녀유무, 주거형태, 소득, 자산, 부채, 재무상태평가지표 값 등의 경제적 특성과 가계의 재무행동 및 현재 재무상태의 만족수준이 각 재무목표 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수준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 충족비중이 낮은 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넷째, 가계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라 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과 ‘계획적 부채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목표에서는 재무목표 미설정 가계의 비중이 설정 가계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한 가계가 상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재무설계와 재무행동을 유도하고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는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재무목표 설정에 대한 재무교육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 소득·지출 평가와 정기적 저축여부 등의 재무행동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재무목표를 달성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계수지를 충족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출관리행동과 저축행동을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갖추어나가는 가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계의 재무목표는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갖추기 위한 재무설계와 재무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재무목표 설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무목표에 대한 인식과 실천수준 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가계 재무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 재무의 안정성과 성장을 중심으로 가계 재무목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재무목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무목표가 설정되고 비재무적 재무목표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무목표의 개념과 구분방식이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계가 보다 쉽고 정확한 가계 재무상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상태 평가방식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재무목표의 특성과 중요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가계 재무목표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가계의 다양한 재무목표를 고려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필요가 있고, 학계 및 실무에서 가계가 설정한 재무목표에 맞는 재무교육을 시행한다면 재무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재무목표, 재무목표 설정, 재무목표 적절성, 재무상태 평가, 재무상태평가지표

학 번 : 2016-21686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제 1 절 재무목표	5
1. 재무목표의 개념	5
2. 재무목표 관련 선행연구	9
제 2 절 재무목표와 재무상태평가	11
1.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의 개념	11
2. 가계 재무상태평가 관련 연구	12
2.1. 재무상태평가지표 개발과 준거기준	12
2.2.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의의와 구분방식	13
2.3. 재무상태 평가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5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
제 1 절 연구문제	21
제 2 절 연구방법	22
1. 분석자료	22
2. 조사도구 구성 및 변수 측정	24
2.1. 가계 재무목표	24
2.2. 가계 재무상태 평가	24
2.3. 가계의 재무행동과 재무상태의 주관적 평가	27
2.4. 가계의 일반적 특성	29
3. 분석방법	30
4. 조사대상자의 특성	31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35
제 1 절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	35
1. 가계 재무목표 우선순위	35
2.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	37
제 2 절 가계의 재무상태와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 평가	47
1. 가계의 재무상태평가지표 준거기준 충족수준	47
2.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 평가	49
제 3 절 재무목표 설정의 부적절성 영향요인	54
 제 5 장 요약 및 결론	 60
제 1 절 요약	60
제 2 절 결론 및 제언	64
 참고문헌	 68
Abstract	75

표 목 차

<표 2-1> 재무목표의 구분	7
<표 2-2>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 구분방식	14
<표 3-1>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설문 구성	22
<표 3-2> 재무상태평가지표와 준거기준 및 재무목표	25
<표 3-3> 경제적 특성 변수 측정	26
<표 3-4> 재무행동과 재무상태의 주관적 평가의 측정 ..	27
<표 3-5> 재무목표 적절성 평가를 위한 가계유형 구분	31
<표 3-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3-7>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과 주관적 평가	33
<표 4-1> 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	36
<표 4-2>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	39
<표 4-3> 연령대별 재무목표 최우선순위	43
<표 4-4> 준거기준 충족 재무상태평가지표 개수	47
<표 4-5>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 비중	48
<표 4-6>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른 구분(1+2+3순위)	50
<표 4-7>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른 유형별 지표 평균	52
<표 4-8> 불충족 재무상태평가지표 관련 재무목표 미설정 요인	5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와 저성장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해져가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등으로 인해 가계의 재무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계는 효과적인 재무설계와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재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가계는 설정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 투자, 차용, 보험구매 등 재무행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재무목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백은영·문숙재(2005), 성영애·공은희(2007), 오현숙·양완연(2011), 조혜진·최재경(2015)은 가계의 저축·투자행동을 중심으로 가계 재무행동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재무목표 설정의 명확성이나 재무목표의 설정 수준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및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여운봉·박현숙, 2014; 조혜진·장연주, 2015; 허경옥 외, 2015). 이처럼 주로 저축·투자 목적 중심의 재무목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부채와 소득·지출 등을 포함하여 가계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재무목표가 가계의 재무적 의사결정 및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나, 과연 가계가 재무적 상황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재무목표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우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연 그 재무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재무목표는 가계의 재무적 상황이나 가계가 처한 생애주기 및 가족구성원의 선호 등에 따라 가계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홍향숙, 1997;

박근주·이기준, 2002). 따라서 가계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현자 외(2003)의 관점 즉, 가계가 먼저 재무적 안정을 달성하고 나아가 재무적으로 성장·발전하려는 목표를 갖게 된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무목표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계가 설정해야 하는 재무목표들이 무엇인지를 구성하고, 재무적 안정과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이용한 재무상태 평가를 통해 가계 재무구조와 가계유형 분석 및 재무관리행동, 위험감수도와 재무교육·상담의 영향 등을 규명하였다면(성영애 외, 2004; 허경옥·한수진, 2005; 정미선 외, 2008; 안창희·정순희, 2009; Cai & Yang, 2012; 오종윤·최현자, 2012; 손지연·박주영, 2016; 주소현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즉,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재무계획과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 수준과 가계의 재무목표를 연계하여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 목표들을 가계가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재무목표를 설정한 가계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가계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가계가 보다 바람직한 재무목표 설정을 통해 가계 재무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재무목표의 설정과 적절성 평가를 위한 연구 틀로 적용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재무설계의 과정은 가계의 현재 재무상태 평가와 재무목표 설정을 포함한다. 가계는 재무상태평가를 통해 소득과 지출, 저축과 투자, 자산과 부채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둘째, 재무상태평가지표는 가계의 궁극적인 재무목표인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단·장기의 관점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자금 마련이 아니라 가계의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재무관리행동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 평가의 최종적인 목적은 재무상태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가계의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인 재무상태평가지표는 재무목표 설정에 기준이 될 수 있다. 가계의 재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보다 명확한 목표설정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각 지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재무목표는 가계가 설정하고 있는 재무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가 재무목표 설정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포괄하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가계가 재무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그 적절성까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학계 및 실무영역에서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가계가 가진 다양한 재무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기획·출시

하고 학계에서는 재무목표 별 적합한 재무교육을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재무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재무행동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의 재무상태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재무목표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목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는 재무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재무계획 및 재무설계의 효과를 증진시켜 재무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가계 부문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금융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재무목표와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재무목표

1. 재무목표의 개념

목표는 목적과 의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와 연관된 행동의 선행조건이다(Locke, 1986; 이주영·심원술, 2006 재인용). 목표는 행동의 지표를 제공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이끌어 낸다. 또한 목표설정은 계획수립의 기반이 된다. Rice & Tucker(1986)는 ‘목표설정-목표 간의 순위결정-표준설정-활동결정’을 계획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목표를 ‘가계의 가치에 따라 설정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Garman & Forgue(1995)는 재무목표를 가계가 재무설계와 재무관리에서의 노력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재무설계는 ‘현재 또는 미래 소득 및 자산 등 자원을 보존하고 증대함으로써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고, 재무관리행동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점검·평가하는 것과 연관된 행동’을 말한다(이기춘 외, 2009). 따라서 재무목표는 가계의 재무설계 및 재무관리행동에 있어 지표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목표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부의 극대화, 효율적 소비의 실천, 재무적 생활만족의 발견, 재무적 안전감, 노후 대비를 들 수 있으며(Garman & Forgue, 1995; 윤정혜 외, 1997 재인용), 저축·투자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Xiao & Noring(1994)은 저축 동기를 생활비 저축

(daily), 교육, 결혼과 여행 등의 구매 계획을 위한 저축(purchase), 비상자금을 위한 저축(emergency), 은퇴를 위한 저축(retirement), 자녀(또는 손자)를 위한 저축(child), 그리고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저축(growth)의 6가지 저축 동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저축 동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재무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비’를 위한 저축, 그리고 중간 수준의 재무적 요구 충족을 위한 ‘비상자금’ 목적의 저축,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재무적 요구 충족과 관련한 ‘은퇴, 자녀 및 성장’을 위한 저축의 순서로 계층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숙(1996)은 준비적 동기(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나 노후·자녀교육 등), 안정·향상 동기(장래 생활수준 향상 및 재무안정), 독립·투자 동기(독립된 생활이나 사업 운영자금 마련), 유산·인색 동기(재산을 물려주거나 돈을 쓰지 않기 위한 목적)의 네 가지로 저축동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저축과 투자 목적은 주로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따라 구분된다. 안승철·김년희(1999)는 가계가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해 주택마련, 자녀교육, 위험대비, 노후대비, 큰돈지출, 자산증식 등의 6가지를 재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조희금(1984)은 자녀교육비마련, 자녀결혼자금마련, 주택마련, 사업자금 마련, 장래의 생활향상, 노후의 생활안정 등 총 6가지로 저축 목적을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가구의 저축목적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결혼/상제비, 노후생활 대비, 자녀교육비, 주택마련, 차입금 상환, 내구재구입 등으로 구분하였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금융자산 투자의 목적을 주택관련, 노후대책, 결혼자금, 사고와 질병대비, 자녀교육비, 부채상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가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 구성원의 요구와 소득 및 자산수준이 변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족생활주기는 가계의 재무목표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보선·임정빈, 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재무목표를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주택마련, 중반기에는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후반기에는 노후 대비를 들 수 있다(범수인·문숙재, 1992).

<표 2-1> 재무목표의 구분

용어	연구자 및 연구기관	구분
재무목표	Garman & Fogue(1995)	소득과 부의 극대화, 효율적 소비의 실천, 재무적 생활만족의 발견, 재무적 안전감, 노후 대비
재정목표	안승철·김년희(1999)	주택마련, 자녀교육, 위험대비, 노후대비, 큰돈지출, 자산증식
저축목적	조희금 (1984)	자녀교육비마련, 자녀결혼자금마련, 주택마련, 사업자금 마련, 장래의 생활향상, 노후의 생활안정
	김정숙(1996)	준비적 동기, 안정·향상 동기, 독립·투자 동기, 유산·인색동기
	Xiao & Noring(1994)	생활비 저축 (daily), 교육, 결혼과 여행 등의 구매 계획을 위한 저축(purchase), 비상자금을 위한 저축(emergency), 은퇴를 위한 저축(retirement), 자녀(또는 손자)를 위한 저축(child),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저축(growth)
	한국노동연구원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 결혼/상제비, 노후생활 대비, 자녀교육비, 주택마련, 차입금 상환, 사업(투자)자금 마련, 내구재 구입, 여행 및 여가생활, 특별한 목적 없음, 기타
투자목적	통계청	주택관련, 노후대책, 결혼자금, 사고와 질병대비, 자녀교육비, 부채상환, 기타

박근주·이기춘(2002)은 생애주기를 축적기-확대기-자산보존기로 구분하였는데, 생애주기 초기인 축적기에는 주택마련, 자녀교육 및 비상금 마련을 위한 자금 축적을 재무목표로 갖고, 확대기는 보다 안정화된 재무자원을 기반으로 투자수익을 올리는 시기이며, 마지막으로 자산보존기는 은퇴이후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았다. 이처럼 가계가 생애주기 중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재무적 요구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주요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또한 백은영·문숙재(2005)는 생애주기단계 별 가계의 심층면접을 통해 초기에는 막연한 재무목표가 설정되고, 주기단계를 거치며 목표가 구체화되다가 노년기에는 특정 재무목표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성기와 확대기가 되며 재무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다가 자녀 독립기와 축소기에 문제가 단순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무목표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로 재무목표에 대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재무문제나 저축 목적을 연구자가 설정하고 제시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각 연구 별로 재무목표의 구분 방식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축·투자 목적은 주택마련, 자녀 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 대비와 부채상환 등 가족생활주기에 특정 자금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재무 목표 또는 재정 목표는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과 더불어 소득 및 자산의 증식과 효율적 소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재무목표는 저축·투자 목적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재무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재무목표를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계 재무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재무목표의 구분은 제 2 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2. 재무목표 관련 선행연구

재무목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적용하여 각 생활주기별 재무목표를 파악하고 주요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 외에도 가계의 재무목표를 체계론 등에 기반하여 재무관리행동이나 재무만족도 등의 주요변수로 분석한 연구와 저축이나 투자 목적을 중심으로 그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체계론을 적용하여 재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재무목표의 수립을 체계론의 ‘투입 - 과정(변환) - 산출’의 단계에서 투입단계로 보거나 과정(변환)단계로 보는 두 가지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과정(변환) 단계에 재무목표 수립을 포함한 홍향숙(1997)과 안승철·김년희(1999)의 연구에서 투입요소는 가계의 자원과 가계 구성원의 요구이고, 변환 과정은 계획과 수행으로 구분되고, 최종적인 산출은 재무만족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기서 계획은 ‘목표설정-표준설정-자원평가와 정보수집’으로 구성되며, 목표 설정이 재무 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출요소인 재무만족도를 재무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재정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허경옥 외(2015)는 체계론에서 재무목표가 투입요소가 되어 재무목표가 이후 과정 단계의 재무계획과 행동의 기초가 되고, 설정한 재무목표를 위해 실행하는 재무행동을 통해 재무만족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가계재무관리자의 계획성을 ‘재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데 계획적이고 성실한 개인의 특질’로 보아 이 계획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무관리자가 계획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재무상태 파악과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함으로써 객관적 재무상태와 주관적 재무복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atwski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무목표를 가질수록 은퇴계획을 잘 세우고 연금저축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혜진·장연주(2015)는 목표설정이론과

Stawski et al(2007)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목표설정의 명확성과 계획이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목표설정의 명확성은 재무관리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은 재무관리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운봉(2014)은 재무목표를 '미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자금 마련 계획 등 재무적 목표를 설정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노후준비, 교육비 마련, 결혼자금 마련, 주택 마련, 기타 목돈마련의 총 5가지 목적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재무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무상태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재무상태가 좋을수록 재무목표 설정 수준이 높아 재무만족도가 보다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생애주기 별 재무목표 설정의 차이 외의 가계 특성이 재무목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현숙·양완연(2011)은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목적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 연령, 주택종류 및 거주형태, 고용형태와 소득이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35세 미만의 가구주,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 소득이 낮은 집단 등은 주택구입과 부채상환을, 35-54세의 가구주, 상용근로자, 자기소유 아파트 거주자는 자녀교육을 저축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목적 중 특히 노후대비 중심으로 저축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령,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자가 소유 여부 및 소득, 부채 및 자산 현황에 따라 노후대비 목적 저축의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였다(안중범·전승훈, 2006).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재무목표는 가족생활주기 및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재무목표는 재무관리행동과 재무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계가 설정하고 있는 재무목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 2 절 재무목표와 재무상태평가

가계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목표의 구분방식이 필요하며,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목표의 구분과 적절성 평가의 틀로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의 개념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의 개념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란 ‘가계가 재무적 위험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전 상태의 재무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정운영·황덕순, 2002). 또한 주소현 외(2016)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진단하는 연구에서 가계가 단기적,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Financial Fitness’로 명명하였다.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단순지표나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사용한다. 가계소득, 지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등의 단순지표는 재무상태의 객관적인 비교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복합적인 가계경제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순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무비율이 사용되는데, 재무비율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재무변수를 조합하여 산출되는 척도로, 가계의 안정성과 성장성 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최현자 외, 2003, 조혜진·김정현, 2013). 또한 재무비율을 통해 가계 재무를 분석한 경우 단순지표보다 주관적 재무상태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와 가계의 객관적 재무상태와 가계가 평가한 주관적 경제상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일치하는 결과도 있다(김민정·최현자, 2007; 김민정·이희숙, 2009).

이와 같은 재무상태평가지표는 가계가 가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 가계의 재무유형 분석 및 재무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가계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및 투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을 갖는다.(DeVaney, 1993).

2. 가계 재무상태평가 관련 연구

2.1. 재무상태평가지표 개발과 준거기준

재무변수를 조합하여 측정하는 재무비율은 본래 기업의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Griffith(1985)에 의해 가계 재무상태 평가에도 사용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양정선(1997)과 최윤지·최현자(1998)의 연구에서 가계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재무비율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이 미국에 기반한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이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현자 외(2003)는 11개의 가계재무비율을 선정하고, 각 재무비율이 갖는 의미를 포함한 지표를 명명하였다. 안정성지표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와 유동성지표를 포함하였다. 또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가계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이후 양세정 외(2013)는 금융환경과 가계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내 재무상태평가지표 및 준거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총 12개의 재무상태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재무상태 측정을 위해 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지표, 거주주택마련부채부담지표,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와 노후대비저축지표도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자 대상 전문가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설정하였다. 준거기준은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상적, 적절한,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이드라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가계수

지표와 저축성향지표 등 특정 지표들은 연령대에 따른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소현 외(2016)는 가계수지표, 부채부담지표(장기부채부담지표, 거주주택마련부채부담지표)와 투자성향지표를 중심으로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 주의, 위험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진단하였다. 양세정 외(2013)에서는 투자성향지표로 금융투자저축/총저축의 금융투자성향지표를 제시하였다면, 주소현 외(2016)에서는 투자성향의 재무비율을 투자자산/총자산으로 산출하였고, 이 때 투자자산은 금융투자자산과 함께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자산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2.2.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의의와 구분방식

재무상태평가지표와 그 준거기준을 설정한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여러 재무상태평가지표 중 주요 지표의 의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가계수지표는 가계생활의 안정적 운영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간단하고 유용하면서 다른 재무상태평가에 앞서 평가되어야 하는 지표이다. 또한 지출은 가계가 노력을 통해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도 가계수지표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양세정 외, 2013).

비상자금지표는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춘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주지하는 차원에서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준비지표(위험대비지표)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최현자 외(2003)에서는 이 지표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현재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부채부담지표는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거주주택에 대한 부채부담이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로 인해 부채규모가 확대되고 이는 결과적

으로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평가 시 부채부담지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김순미, 2014).

<표 2-2>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 구분방식

연구자	구분방식		
최현자 외 (2003)	안정성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준비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성장성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허경옥· 한수진 (2005)	소득· 지출비율	$\frac{\text{월평균지출}}{\text{월평균소득}}$, $\frac{\text{총저축}}{\text{총소득}}$	
	유동성 비율	$\frac{\text{금융자산}}{\text{월평균소득}}$ (단기), $\frac{\text{금융자산}}{\text{총자산}}$ (장기)	
	자산· 부채비율	$\frac{\text{금융자산}}{\text{총부채}}$, $\frac{\text{월평균부채상환액}}{\text{월평균소득}}$, $\frac{\text{투자자산}}{\text{순자산}}$	
계선자· 정미선 (2007)	수익성	가계수지지표	
	안정성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성장성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투자성향지표	
양세정 외 (2013)	준거/관점	단기적	장기적
	건전성	소비생활부채상환 지표 [현금흐름] 거주주택마련부채 상환지표 [현금흐름]	총부채부담지표 [자산부채] 거주주택마련부채 부담지표 [자산부채]
	건전성 +성장성	가계수지지표 [현금흐름] 비상자금지표 [현금흐름+자산부채] 보장성보험준비지표 [현금흐름] 총부채상환지표 [현금흐름]	
	성장성	총 저축성향지표 [현금흐름]	금융투자저축성향 지표 [현금흐름] 노후대비저축지표 [현금흐름] 금융자산비중지표 [자산부채]

저축성향지표는 현금흐름 측면에서 가계의 저축성향 파악하여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고, 투자성향지표 역시 장기적인 성장과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선진화된 가계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가계의 목표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노후대비저축지표는 현금흐름 측면의 저축성향지표 중 하나로, 노후준비라는 장기 목표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은퇴설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이다.

각 가계 재무상태평가지표는 안정성-성장성,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 그리고 현금흐름-자산부채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2>. 최현자 외(2003)는 가계가 기본적으로 재무적 안정을 달성한 후에 성장, 발전하려는 재무목표를 갖게 된다고 보고,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를 가계의 안정적인 생활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안정성지표와 가계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성장성지표로 구성하였다. 한편, 허경옥·한수진(2005)은 가계수지지표와 저축성향지표를 소득·지출비율로 구분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가계의 재무적 능력을 의미하는 유동성비율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였다. 보유 금융자산으로 총부채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자산/총부채 비율, 월평균 부채상환 비율, 순자산 대비 투자자산은 자산·부채비율에 포함된다. 계선자·정미선(2007)은 최현자 외(2003)의 구분방식에서 가계수지지표를 수익성지표로 보고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으로 가계재무비율지표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세정 외(2013)는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측면,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 측면,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으로 항목체계를 구분하여 한국형 재무비율의 구성체계를 제시하였다.

2.3. 재무상태 평가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 성영애 외(2004)는 최현자 외(2003)의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라 구분한 유형 별 가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부족한 가계가 7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유형에는 가구주 직업과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성 기준만 충족하는 가계는 가구원수, 가구주 직업, 교육수준, 연령과 거주 지역이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가구원 수가 작을수록, 봉급생활자보다 기타취업자나 비취업자인 경우,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기타 지역에 거주할수록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가계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경옥·한수진(2005)은 각 재무비율에 대해 충족가계와 불충족가계로 구분하고 충족가계를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춘 가계로 보아 이 유형의 가계에 속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서는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자녀수, 재무관련 변수는 소득계층, 순자산 보유여부 및 흑자가계여부, 마지막으로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도출되었다.

주소현 외(2016)는 가계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건전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계 특성별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 가계 수지지표는 소득수준,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근로형태, 가구원 수, 자가 보유여부 등에 따라 충족 확률이 달라졌다.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자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가구주 근로형태가 기타인 경우 위험수준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거주주택마련부채부담지표는 대부분의 가계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자성향지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가계는 20, 30대 가구에서 많았고, 여성가구주와 임금근로자 가구주 가계 및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투자성향지표를 충족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특성과 더불어 재무지식이나 재무관리행동과 가계 재무상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배미경(2007)은 각 재무비율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재무비율의 수를 ‘객관적 재무건전성’으로 정의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객관적 재무건전성은 낮아지고, 재무관리행동의 ‘계획’ 부분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

는 반면, ‘수행’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재무지식수준도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동필 외(2007)는 가계의 재무지식과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무관리는 계획과 수행을 중심으로 소득·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신용카드관리, 저축투자관리, 보험위험관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객관적 재무건전성은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 투자성향지표, 위험대비지표, 유동성지표를 사용하였다.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총소득, 가구주연령과 재무관리계획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관리수행과 재무지식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 재무건전성은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많이 만족하는 가계는 재무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의 변화지향성에 따른 가계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살펴본 정미선 외(2008)의 연구에서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계를 안정가계,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가계는 불안정가계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변화지향적 재무관리행동이 높은 집단은 대부분의 객관적 가계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안정가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지연·박주영(2016)은 가계부기록행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 기록행동과 가계재무상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가계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달성여부로 측정하였고, 안정성지표로 부채부담지표와 비상자금지표, 성장성지표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를 사용하였다. 부채부담지표 달성에 있어 기혼, 소득, 가계부 작성행동은 부적 영향을, 무직인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상자금지표 달성에는 연령, 소득, 가계부 작성행동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로 저축성향지표에는 성별, 직업상태, 소득, 가계부 기록행동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투자성향지표는 가계부 기록행동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노후대비저축지표에는 소득, 연령과 가계부기록행동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달성을

위해 가계 기록이 효과적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재무 복지(Financial Wellness) 또는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ness) 등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로 구분하여 가계 특성과 재무설계상담 및 재무교육에 따라 재무복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객관적 재무복지는 재무상태 평가를 통해, 주관적 재무복지는 객관적 재무상태에 대한 가계의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외 연구로 Baek & De Vaney(2004)는 연령, 결혼상태, 자녀수와 같은 가계의 '재무적 수요', 교육, 고용상태, 소득 및 주택 및 소유와 같은 '인적/재무적 자원', 신용 및 위험에 대한 '재무 태도', 신용 사용, 저축 및 지출과 같은 '재무관리행동'의 변수로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미국의 베이비부머의 재무복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소득만큼이나 효율적인 지출과 신용 사용이 객관적, 주관적 재무복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Rutherford & Fox(2010)은 객관적 재무요소, 재무만족도, 재무행동 및 주관적 인식이 재무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재무비율이 재무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재무복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Boston College Center for Work & Family(2011)과 Delafrooz & Paim(2011)은 성별, 결혼상태, 주택보유상태, 소득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재무지식 및 재무행동 그리고 재무스트레스를 가계의 재무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안창희·정순희, 2006). 객관적 경제복지의 총 인과적 효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재무행동이고, 그 다음은 소득으로 나타났고, 재무교육관련 변수 중에는 재무교육 참여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결혼여부, 성별, 연령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창희·정순희(2009)는 '재무성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재무교육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 살펴보았다. 객관적 재무성과는 안정성은 가계수지율, 비상자금 확보율, 위험 대비율, 부채부담률로, 성장성은 저축률과 투자율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재무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로 재무교육 경험집단이 성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자산 집단에서는 교육경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저축률이 높았고, 고자산집단에서는 교육경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계수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오종윤·최현자(2012)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의 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객관적 재무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소비지출, 자산, 부채의 단순지표와,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비율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의 재무비율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무설계상담 경험 유무에 따라 객관적 재무복지인 재무비율지표 중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 충족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재무설계상담 경험과 객관적 재무상태지표가 주관적 재무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재무건전성, 재무복지나 재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주관적 재무건전성 및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계선자·정미선, 2007; 조동필 외, 2007; 정미선 외, 2008; Rutherford & Fox, 2010; 오종윤·최현자,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재무상태평가에 근거해서 재무목표가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본 연구, 즉 재무목표설정과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연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목표 설정 과정을 고려한 최현자 외(2003)의 안정성-성장성으로 구성된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토대로 가계 재무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을 재무목표로 보았을 때, 가계의 재무적 안정 및 성장과 관련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계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가계의

재무상태평가를 위해 먼저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단순지표로는 가계의 소득수준, 재무비율을 활용한 지표로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보장성보험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포함하였다. 재무적 성장·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저축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와 투자성향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재무상태평가지표를 고려하여 가계 재무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가계의 재무 안정성을 위한 가계의 재무목표로는 소득수준과 관련한 ‘가계 소득 증진 및 극대화’, 가계수지지표와 관련한 ‘지출관리’, 비상자금지표 관련 재무목표는 ‘사고 및 질병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자금마련’, 보장성보험준비지표와 연계한 재무목표로는 ‘위험대비를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 보유’, 부채부담지표와 관련된 재무목표로 ‘부채상환’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계의 재무 성장성을 위해 가계가 설정할 수 있는 재무목표로 저축성향지표로는 ‘주택구입, 자녀교육 및 결혼 등의 목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저축’, 노후대비저축지표와 관련된 재무목표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 저축’, 마지막으로 투자성향지표와 관련한 재무목표는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자산 보유’로 구성하였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게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게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재무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 2 장에서 도출한 재무상태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가게가 설정할 수 있는 8가지의 재무목표에 대해 가게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고, 가게가 가장 중요하게 설정한 재무목표에 있어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무목표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를 파악하였고, 지표의 충족/불충족과 재무목표의 설정/미설정 여부에 따라 가게를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되어야 할 재무상태 요소에 대해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재무목표와 재무상태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게의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에 대한 가게의 주관적 인식과 자신감 및 재무행동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게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게의 재무상태평가에 기초하여 가게는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연구문제 3]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게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 2 절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소비자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1>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설문 구성

객관적 지표	재무행동: 계획과 실천수준		주관적 인식: 주관적 평가와 자신감	
소득수준	계획	일상 지출을 위한 예산 및 소비계획 수립	주관적 평가	소득수준에 대한 평가
		일상 지출을 위한 예산 수립의 단위기간		
가계수지지표	실천 수준	공과금 및 신용카드 요금 납부 기한 관리 지난 1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개월 수	자신감	일상적 재무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
비상자금지표	계획/ 실천 수준	비상금	주관적 평가/ 자신감	비상금
보장성보험준비지표 (보유여부)		보험		보험
부채부담지표 + 신용등급 (부채조달능력)		신용과 부채		신용과 부채
노후대비준비지표		노후준비		노후준비

저축성향지표	계획	장기저축 계획 여부	주관적 평가	저축과 투자를 통한 단기/ 장기 목표자금 준비 평가
		미래 저축계획 시 기준이 되는 기간		
투자성향지표	실천 수준	저축습관 (저축여부/정기성 여부)	자신감	저축과 투자를 통한 단기/ 장기 재무적 안정 달성 자신감

해당 조사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과 재무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재무행동과 재무 관련 경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3-1>. 본 연구를 위해 총 2,002명의 응답자 중 객관적 재무상태에 대한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였고, 추가적으로 가계의 재무상태와 관련한 이상치를 제거하고 조사응답자가 가구주인 대상자만을 추출하여 결과적으로 1,237명¹⁾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소득, 지출, 저축·투자, 자산 및 부채액에서 이상치를 제거하고, 조사응답자와 가구주가 일치하는 가계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조사도구 구성 및 변수 측정

2.1. 가계 재무목표

본 연구에서는 가계가 설정한 재무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목표 우선순위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충 저축액 늘리기’,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하기’,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하기,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하기’, 그리고 ‘계획적으로 부채상환하기’의 8가지 재무목표에 대해 가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목표를 순서대로 3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상의 재무목표는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목표들로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상태평가지표와 연관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2.2. 가계 재무상태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총 8가지의 재무상태지표를 사용하였다. 단순지표로는 가계소득을 포함하였고, 가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산출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한 균등화 중위소득 값(2016년 기준 2,023,477원)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재무비율지표의 경우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보장성보험준비지표, 부채부담지표의 4가지 안정성 지표와 저축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 투자성향지표의 3가지 성장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각 지표의 측정방법과 준거기준은 최현자 외(2003), 양세정 외(2013), 주소현 외(2016)를 참고하여 다음 <표 3-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3-2> 재무상태평가지표와 준거기준 및 재무목표

지표	재무비율	준거기준	미충족 시 설정 목표	
안정성 지표	균등화 중위소득	$\frac{\text{월평균가계소득}}{\sqrt{\text{가구원수}}}$	중위소득값 이상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가계수지 지표	$\frac{\text{월평균생활비}}{\text{월평균가계소득}}$	20대: 50% 30대: 70% 40대: 80% 50대: 90% 65세 이상: 95% 이하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비상자금 지표	$\frac{\text{유동성자산}}{\text{총지출}}$	20대: 2배 30대: 3배 40대: 4배 50대: 5배 65세 이상: 6배 이상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
	보장성보험 준비지표	$\frac{\text{보장성보험료}}{\text{총소득}}$	0-20%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하기
	부채부담 지표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40% 이하	계획적으로 부채상환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 지표	$\frac{\text{총저축}}{\text{총소득}}$	20대: 50% 30대:30% 40대: 20% 50대: 10% 65세: 5% 이상	총 저축액 늘리기
	노후대비 저축지표	$\frac{\text{노후대비저축}}{\text{총저축}}$	50% 이상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
	투자성향 지표	$\frac{\text{투자자산}}{\text{총자산}}$	20% 이상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

분석을 위해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와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은 양세정 외(2013)에서 제시한 연령대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다. 즉, 가계수지지표는 20대는 50%이하, 30대는 70%이하, 40대는 80%이하, 50대와 64세까지는 90%이하, 65세 이상은 95%이하이면 각 가계수지지표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비상자금 지표는 20대 2배, 30대 3배, 40대 4배, 50대와 64세까지는 6배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저축성향지표의 경우 20대 50%이상, 30대 30% 이상, 40대 20% 이상, 50대 및 64세까지 10%이상,

65세 이상은 5%이상의 기준을 따랐다. 보장성보험준비지표의 경우 위험 대비를 위한 준비여부가 중요하고,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한 경우 오히려 다른 재무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현자 외(2003)의 준거기준 0~20%를 적용하였다. 부채부담지표는 자산 부채 측면을 고려한 장기부채부담지표인 총부채부담지표를 활용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준으로 40% 이내 충족을 준거기준으로 보았으며, 노후대비저축지표는 재무성장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수준인 50% 이상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투자성향지표는 주소현 외(2016)의 투자자산 대비 총자산을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을 적용하였다. 재무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한 재무관련 변수들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경제적 특성 변수 측정

변수	변수 측정
월평균 가계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총 소득액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사적연금소득+이전소득)
월평균생활비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비지출 (주거비, 공과금, 식비, 외식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이미용비, 문화생활비, 경조사비, 용돈 등 포함)
월평균 보장성보험료	생명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등 납입액
월평균저축액	예금, 적금, 펀드, 주식투자액, 저축성보험료 납입액
노후대비저축	월평균 저축액 중 노후대비 위한 저축액 비중(%) 문항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 총액
유동성자산	수시입출금식 예금, 예·적금
투자자산	거주주택이외 부동산자산+금융자산
총부채	신용카드잔액+담보대출잔액+기타부채잔액

2.3. 가계의 재무행동과 재무상태의 주관적 평가

가계의 재무행동은 소득·지출 평가, 정기적 저축 여부, 보험보유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 3-4>와 같다.

<표 3-4> 재무행동과 재무상태의 주관적 평가의 측정*

변수	문항 내용
현재 재무상태 만족수준	우리 집의 현재 재무상태에 만족한다
향후 3년 소득 예측	우리 집의 가계소득은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3년 내 (감소/비슷/증가) 할 것이다
다음 달 소득 예측	다음 달 소득을 얼마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일상적 재무문제 해결	우리 집의 일상적 재무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매월 생활비 감당 어려움	우리 집은 매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비상자금 충분성	우리 가계는 비상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비상자금 마련 자신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한 달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당장 마련할 자신이 있다
보험 보장 충분성	우리 가계가 가입한 보험은 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무적 충격 감당 자신감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입한 보험으로 가계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자신이 있다
보유 부채 인식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은 지나치게 많다
부채 상환 자신감	부채를 계획대로 모두 상환할 자신이 있다
노후자금 충분성	우리 가계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은 연령대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이다
노후자금 마련 자신감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자금을 마련하였거나 마련할 자신이 있다

단기적/장기적 재무목표 자금준비	우리 집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 단기적(대략 5년 미만)/장기적(대략 5년 이상)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 준비가 되어있다
단기적/장기적 재무안정 자신감	우리 집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 단기적(대략 5년 미만)/장기적(대략 5년 이상)으로 재무 안정을 이룰 자신이 있다

*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단, ‘향후 3년 소득 예측’ 문항은 5점 척도: 크게 감소(1점), 다소 감소(2점), 비슷(3점), 다소 증가(4점), 크게 증가(5점)

소득·지출평가는 지난 1년 동안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에서는 ‘소득보다 훨씬 많이 지출했다’, ‘소득보다 조금 많이 지출했다’, ‘소득만큼 지출했다’, ‘소득보다 조금 적게 지출했다’, ‘소득보다 훨씬 적게 지출했다’ 총 다섯 가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소득만큼 지출’, ‘소득보다 많이 지출’, ‘소득보다 적게 지출’로 재구분하여 지출관리행동 변수로 활용하였다.

정기적 저축 여부는 지난 1년간 저축여부와 저축행동 문항을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함’과 ‘비정기적 저축 또는 저축하지 않음’으로 재구분하여 정기적 저축행동 변수로 활용하였다. 보험유무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성 보험(질병, 상해, 사고, 사망 등)에 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계 재무상태의 주관적 평가로는 현재 재무상태 만족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재무목표와 연관된 주관적 평가로는 향후 3년 내 소득에 대한 예측 및 다음 달 소득에 대한 예측 관련 문항으로,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는 일상적 재무문제 해결과 매월 생활비 감당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은 비상자금의 충분성과 비상자금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위험 대비 적절한 보험 보유하기’는 보유한 보험의 보장에 대한

충분성 및 재무적 충격에 대해 보유한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계획적 부채상환’은 보유한 부채에 대한 인식과 보유 부채 상환 자신감으로, 그리고 ‘총 저축액 늘리기’와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단기적/장기적 재무목표 자금준비와 재무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 재무목표와 연관된 주관적 평가로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 충분성과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자신감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등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향후 3년 소득 예측’ 문항에 대해서만 크게 감소(1점), 다소 감소(2점), 비슷(3점), 다소 증가(4점), 크게 증가(5점)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4. 가계의 일반적 특성

그 외 응답자의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과 투자성향을 포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력, 직업, 거주형태, 18세 이하 자녀 유무, 가구원 수를 포함한다. 거주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기타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변수는 앞서 살펴본 월평균 소비지출액,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재무목표 설명 변수로서 투자성향을 포함하였다. 투자성향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각 재무목표 별 최우선순위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대 별 재무목표 최우선순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표 3-2>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평가지표의 값을 산출하고,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준거기준에 따른 충족비율을 확인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가계 재무목표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가계가 충족하지 못한 지표와 관련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재무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았다. 즉, 균등화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가계는 현재보다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가계수지지표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충분한 유동성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자금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는 충분한 비상자금을 마련을, 위험대비를 위한 보장성보험준비지표를 불충족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 보유를 재무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저축성향지표나 노후대비저축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총 저축액 늘리기’와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를 가계의 재무목표로, 충분한 투자자산을 확보하지 않아 투자성향지표가 충족되지 않은 가계는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을 재무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차분석을 통해 각 <표 3-5>와 같이 각각의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른 응답자를 구분하고 각 유형별 비중을 분석하였다. 유형 별 재무상태평가지표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Duncan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에 대해서는 <표 3-5>에서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 중 관련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5> 재무목표 적절성 평가를 위한 가계유형 구분

재무상태평가지표	재무목표	
	미설정	설정
불충족	부적절	적절
충족	적절	적절

4.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6>과 같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46.2세이고, 남성 가구주는 72.6%, 여성 가구주는 27.4%로 남성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67%가 기혼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대졸이 56.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41.5%), 전문·경영·관리직(23.3%) 순으로 많았다. 가구원수는 평균 3.01명이고 4인 가구가 3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18세 자녀가 있는 가계는 62%였고, 주거형태의 경우 자가 67.3%, 전세 19.0%, 월세 및 기타가 13.7%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560.1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245.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험료는 39.5만원, 월평균 저축액은 99.8만원이었다. 자산부채 상태를 확인해보면, 평균 투자자산 금액은 9709.1만원, 유동성 자산, 3175.4만원, 총자산은 35933.3만원, 총부채는 3540.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6>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연령	20대	89(7.2)	가구 원수	1인	191(15.4)
	30대	277(22.4)		2인	222(17.9)
	40대	381(30.8)		3인	312(25.2)
	50대	311(25.1)		4인	415(33.5)
	60대	179(14.5)		5인 이상	97(7.9)
성별	남성	898(72.6)	18세 자녀 유무	있음	767(62.0)
	여성	339(27.4)		없음	470(38.0)
혼인 상태	미혼	319(25.8)	거주 형태	자가	833(67.3)
	기혼	829(67.0)		전세	235(19.0)
	이혼·사별	89(7.2)		월세/ 기타	169(13.7)
학력	대졸미만	364(29.4)	변수		평균(만원)
	대졸	699(56.5)	월평균가계소득	560.1	
	대학원졸	174(14.1)	월평균생활비	245.7	
직업	전문·경영·관리직	288(23.3)	월평균보장성 보험료	39.5	
	사무직	513(41.5)	월평균저축액	99.8	
	자영업	134(10.8)	총자산	35933.3	
	노동·생산·판매· 서비스직	168(13.6)	유동성자산	3175.4	
	학생·전업주부· 무직·기타	134(10.8)	투자자산	9709.1	
			총부채	3540.8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의 재무행동, 투자성향 및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표 3-7>과 같다. 지난 1년간 소득·지출 평가 결과, 소득보다 지출을 더한 가계가 43.4%로 소득보다 덜 지출한 가계(34.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가계는 52.3%이

고, 비정기적으로 하거나 아예 저축을 하지 않는 가계는 47.7%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85%가 보장성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계의 투자성향을 살펴본 결과, 73.7%가 안정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조사대상자의 재무행동과 주관적 평가

지난 1년 소득·지출평가		빈도(%) / 평균	
소득>지출	424(34.3)	현재 재무상태 만족수준	2.37
소득=지출	276(22.3)	향후 3년 소득 예상(5점)	3.28
소득<지출	537(43.4)	다음 달 소득 예측	3.08
정기적 저축		일상적 재무문제 해결	2.80
함	647(52.3)	매월 생활비 감당 어려움	2.03
안함	590(47.7)	비상자금 충분성 인식(4점)	2.67
보장성 보험		비상자금마련 자신감(4점)	3.01
있음	1051(85.0)	가입 보험의 보장 충분성 인식	2.84
없음	186(15.0)	재무적 충격 감당 자신감	2.82
투자성향		가계 부채 많다고 인식	2.45
안정형	412(33.3)	부채상환 자신감	3.08
안정추구형	500(40.4)	노후자금 충분성 인식	2.38
위험중립형	213(17.2)	노후자금 마련 자신감	2.66
적극투자형	78(6.3)	단기적 재무목표 자금준비	2.43
공격투자형	34(2.7)	단기적 재무안정 자신감	2.56
		장기적 재무목표 자금준비	2.45
		장기적 재무안정 자신감	2.56

재무상태에 대한 가계의 주관적 평가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은 2.37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소득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다음 달 소득 예측은 3.08점으로 예측하기 쉽다고 응답한 가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적 재무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평균 2.80점으로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월 생활비 감당이 어려운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2.03점으로 평균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 부채상환, 재무목표를 위한 자금, 노후자금은 공통적으로 현재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마련할 자신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이 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과 가입한 보험으로 비상상황의 충격을 가계가 감당할 자신감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단/장기적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준비 및 재무안정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 2.5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

1. 가계 재무목표 우선순위

[연구문제 1]은 우리나라 가계가 재무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재무목표 우선순위 설정에 영향을 주는 가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와 연관된 8개의 재무목표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목표를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의 응답 비중은 <표 4-1>과 같다.

우리나라 가계들이 가장 우선으로(1순위) 세우는 재무목표는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하기’가 27.2%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14.5%), ‘총 저축액 늘리기’(12.9%)와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하기’(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경우에는 저축(11.6%)과 투자(12.9%)보다는 부채상환(14.5%)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선택한 비중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재무목표 중 노후자금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출관리나 비상상황 및 위험을 위한 대비보다는 저축액과 소득·자산의 증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노후 자금 준비’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은 응답자의 70%가 40대 이상이라는 점과 함께 고령화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 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

빈도(%), (순위)

전체 가계			
재무목표	1순위 (n=1237)		1+2+3순위
충분한 노후 자금 준비하기	336(27.2)	(1)	765(21.4) (1)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179(14.5)	(2)	475(13.3) (2)
총 저축액 늘리기	160(12.9)	(3)	443(12.4) (4)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하기	158(12.8)	(4)	446(12.5) (3)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126(10.2)	(5)	385(10.8) (6)
계획적으로 부채 상환하기	114(9.2)	(6)	321(9.0) (8)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82(6.6)		411(11.5) (5)
위험 대비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	82(6.6)	(7)	329(9.2) (7)

부채보유 가계			
재무목표	1순위 (n=689)		1+2+3순위
충분한 노후 자금 준비하기	161(23.4)	(1)	397(19.8) (1)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102(14.8)	(2)	273(13.6) (3)
계획적으로 부채 상환하기	100(14.5)	(3)	276(13.8) (2)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하기	89(12.9)	(4)	250(12.5) (4)
총 저축액 늘리기	80(11.6)	(5)	213(10.6) (6)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80(11.6)	(6)	216(10.8) (5)
위험 대비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	43(6.2)	(7)	178(8.9) (8)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41(6.0)	(8)	198(9.9) (7)

저축·투자 목적에 대한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금융자산 투자의 주된 목적으로 노후 대책(55.2%)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주택관련(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 17.4%, 부채상환 9.6%, 자녀교육비 마련 7.1%, 사고와 질병 대비 3.5%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조사 18차 자료에서는 가구 저

축목적으로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가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결혼/상제비, 노후 생활 대비가 각각 17.8%와 17.7%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목표가 전체 응답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 교육비는 8.9%, 주택마련은 6.8%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의 재무목표 우선순위와 비교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후자금 준비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결과 노후 생활 대비는 응답비중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 증진 및 지출 관리에 대한 재무목표가 포함되어 있고, 저축·투자관련 재무목표는 저축성향지표와 투자성향지표의 재무비율 산출 방식을 고려하여 ‘총 저축액 늘리기’와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으로 구성하였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자녀교육비나 주택자금 마련과 같은 특정 자금과 관련한 저축·투자 목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 비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

다음으로 어떤 가계가 특정 재무목표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거주형태, 18세 자녀 유무, 가구원수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지난 1년 간 소득·지출 평가, 정기적 저축 여부, 보험유무의 재무행동 변수, 소득, 자산, 부채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을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계재무상태는 가계가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재무행동을 잘 수행하여 개선되었을 수도 있지만, 가계가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재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재무상태와 재무목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각 재무목표와 관련한 재무상태평가지표의 값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단, 재무목표 우선순위 설정의 이유 분석에 있어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과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는 1순위에 대한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아 1+2+3순위로 확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

최우선순위 설정=1		충분한 노후자금		현재보다 소득늘리기		총 저축액 늘리기		투자 통한 자산 증식	
변수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03	1.03***	-0.03	0.97**	0.00	1.00	-0.02	0.98*
가구구성별(여자=0)		0.07	1.07	0.11	1.12	-0.09	0.91	0.30	1.35
주거형태 (자가=0)	전세	-0.12	0.88	0.04	1.04	0.76	2.14**	-0.20	0.82
	월세·기타	-0.37	0.69	-0.01	0.99	0.96	2.62**	-0.31	0.73
18세이하 자녀(없음=0)		-0.57	0.56**	0.68	1.98**	0.36	1.44	0.05	1.05
가구원수		0.11	1.12	-0.17	0.85	-0.14	0.87	0.00	1.00
소득지출평가 (소득>지출=0)	소득=지출	-0.06	0.94	0.29	1.33	0.39	1.47	-0.36	0.70
	소득<지출	-0.14	0.87	-0.15	0.86	0.04	1.04	-0.21	0.81
정기적 저축(안함=0)		-0.05	0.95	-0.22	0.80	0.74	2.10***	-0.10	0.90
보험유무 (없음=0)		0.02	1.02	-0.50	0.61*	0.10	1.10	0.41	1.51
연소득		0.06	1.06	-0.05	0.95	0.15	1.16	-0.16	0.85
총자산		0.02	1.02	0.00	1.00	-0.06	0.94	0.24	1.27*
총부채		-0.03	0.98	-0.02	0.98	-0.03	0.97	0.00	1.00
현재 재무상태 만족수준		0.05	1.05	-0.35	0.71**	0.27	1.32*	0.22	1.24
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	0.94	2.57***						
	균등화소득			0.00	1.00				
	저축성향지표					0.10	1.10		
	투자성향지표							0.88	2.41*
상수			-3.60***		1.02		-3.60**		-3.12

-2Log 우도	1314.680	967.450	885.909	891.316
χ^2	116.688***	48.967***	64.425***	43.714***
NagelkerkeR2	0.132	0.069	0.095	0.066

*p<.05, **p<0.01 ***p<.001

<표 4-2> 계속

(최)우선순위 설정=1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계획적 부채상환		충분한 비상자금 ²⁾		위험대비 위한 적절한 보험	
변수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00	1.00	-0.02	0.982	-0.01	0.99*	0.02	1.02**
가구구성별(여자=0)		-0.42	0.66*	-0.01	0.986	0.04	1.05	0.32	1.38*
주거형태 (자가=0)	전세	0.16	1.17	-0.17	0.842	-0.07	0.93	0.04	1.04
	월세·기타	0.06	1.06	0.11	1.115	0.04	1.04	-0.33	0.72
18세이하 자녀(없음=0)		0.08	1.08	0.26	1.296	-0.37	0.69*	-0.20	0.82
가구원수		0.01	1.01	0.05	1.050	0.08	1.08	0.08	1.09
소득지출평가 (소득>지출=0)	소득=지출	0.25	1.29	-0.30	0.742	0.21	1.23	-0.15	0.86
	소득<지출	0.58	1.79*	0.13	1.144	-0.14	0.87	-0.10	0.91
정기적 저축(안함=0)		0.09	1.09	-0.56	0.572*	-0.01	0.99	-0.08	0.92
보험유무(없음=0)		0.80	2.23*	-0.17	0.841	0.09	1.10	0.82	2.27***
연소득		0.00	1.00	0.03	1.034	-0.15	0.86*	-0.15	0.86
총자산		-0.03	0.97	-0.14	0.867	0.02	1.02	-0.07	0.93
총부채		-0.04	0.96	0.26	1.295***	-0.05	0.95	0.00	1.00
현재 재무상태 만족수준		-0.17	0.84	-0.30	0.739	0.08	1.09	0.11	1.12

지표	가계수지지표	0.04	1.04					
	부채부담지표			0.01	1.006			
	비상자금지표			0.00	1.00			
	보장성보험준비지표					-0.15	0.86	
상수		-2.36		-1.19		0.98		-1.12
-2Log 우도		786.820		647.107		1522.058		1385.073
χ ²		25.555*		107.340***		36.559**		38.254**
NagelkerkeR ²		0.043		0.182		0.041		0.045

*p<.05, **p<0.01 ***p<.001

2)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과 ‘위험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의 경우 재무목표 최우선순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아, 재무목표의 1+2+3순위 기준으로 설정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재무목표별로 최우선으로 해당 재무목표를 설정한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고, 노후대비저축지표가 높을수록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보장성보험을 보유하지 않고, 현재 가계의 재무상태를 만족하지 않을수록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총 저축액 늘리기’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한데에는 거주형태, 정기적 저축여부,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총 저축액 늘리기’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총자산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자성향지표 값이 높을수록 최우선 재무목표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여성 가구주, 지난 1년 소득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리고 보장성보험을 보유한 가계가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를,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고, 부채액이 클수록 ‘계획적 부채상환’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18세 자녀가 없는 경우, 연소득액이 낮을수록 비상자금 마련을 재무목표(1+2+3순위)로 선택할 확률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남자이고, 보장성보험을 보유한 가계인 경우 ‘위험 대비 적절한 보험 보유’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 변수는 ‘충분한 노후자금’과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라는 재무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정적 영향을,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과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 연령대별 재무목표 최우선순위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연령대별 재무목표 최우선순위

연령대	충분한 노후 자금	현재 보다 소득 늘리기	총 저축액 늘리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계획적 부채 상환	충분한 비상 자금	위험 대비 적절한 보험	x2
20대	14.6	15.7	22.5	10.1	11.2	9.0	11.2	5.6	109.2 73 ***
30대	15.5	18.8	14.1	15.2	11.9	11.6	9.0	4.0	
40대	21.8	17.8	12.9	13.4	8.7	10.8	7.6	7.1	
50대	39.5	10.9	9.6	11.3	10.6	7.1	3.9	7.1	
60대	41.3	6.1	12.3	11.7	9.5	6.1	3.4	9.5	

*** p<.001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최우선 재무목표의 비중이 ‘총 저축액 늘리기’(22.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15.7%)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18.8%)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충분한 노후자금 준비’(15.5%)와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15.2%)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노후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21.8%),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17.8%)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50대와 60대는 40% 정도가 ‘충분한 노후자금’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0-30대에 비해 40-60대에서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를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한 비중이 높은 반면, 50-60대에 비해 20-40대에서 ‘충분한 비상자금’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추구하고 단기적 위험 대처를 위한 비상자금 마련을 중시하는 반면, 은퇴를 앞두고나 이미 한 50-60대의 경우에는 노후 대비 및 장기적 위험 대비를 위한 보험보유의 재무목표를 더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18세 이하의 자녀유무의 경우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과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에는 부적 영향을,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재무목표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연령 변수와 함께 고려해보면, 노후 자금 마련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게

됨으로써 본인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젊은 연령대이거나 자녀가 없는 가계에서는 비상자금 확보를 중요한 재무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계는 자녀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소득 개선을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가 보유 여부는 ‘총저축액 늘리기’의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한 가계의 주요 저축목적은 주택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계의 재무행동도 재무목표 설정의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먼저 지난 1년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컸던 가계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보험 보유는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와 ‘위험 대비 적절한 보험 보유’에는 정적영향을,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보장성보험 유무가 소득 및 지출관련 재무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보험료가 가계 지출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보험을 가입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지출관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계는 소득이 부족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험 보유 가계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은 583.3만원, 보험 미보유 가계의 평균은 428.5만원으로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를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한 가계는 보장성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계일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가계가 이 재무목표를 중요하게 설정하고 보장성 보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보장성보험을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의 재무목표를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계는 갑작스러운 위험 발생 시 재무적 안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가계

보험가입 적정성에 대한 비교조사 연구’ 결과,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18%를 월 보험료로 납입하여 경제력 대비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8.1.10). 이미 보장성 보험을 보유한 가계는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지출하여 현재 소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를 통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가입의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가계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보유에 대한 재무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 저축여부는 ‘총 저축액 늘리기’에는 정적 영향을, ‘계획적 부채상환’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저축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 최우선 재무목표로 ‘총 저축액 늘리기’를 설정하는 반면, 앞서 살펴본 부채가계의 재무목표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했을 때 부채 상환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하는 가계는 부채상환으로 인해 정기적 저축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연소득이 낮을수록 ‘충분한 비상자금’을, 총자산액이 높을수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그리고 부채액이 높을수록 ‘계획적 부채상환’을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할 확률이 높았다.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은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와 ‘총 저축액 늘리기’의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현재 재무상태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재무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재무상태에 만족하는 경우 저축을 재무목표로 설정하면서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목표와 관련있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변수로 투입한 결과, 노후대비저축지표와 투자성향지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총 저축액 중 노후를 위한 저축 비중이 높을수록 ‘충분한 노후자금’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할 확률이 높고, 총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하고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해당 재무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고 재무행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평가지표 값이 높게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계 재무목표 우선순위와 최우선 재무목표 설정에 따른 가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계는 주로 장기적이고 성장성 측면의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마련이나 저축과 투자를 재무목표로 설정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더불어 가계의 재무적 안정을 확보하고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 위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 보유의 경우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재무목표와 비교했을 때 재무적 안정을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목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 연령과 18세 이하 자녀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재무목표 또는 저축·투자 목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과 자가 소유여부나 부채 및 자산 상태도 재무목표에 있어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것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범수인·문숙재, 1992; 백은영·문숙재, 2005; 안종범·전승훈, 2006; 오현숙·양완연, 2011). 이 외에도 소득 대비 지출, 정기적 저축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와 같은 가계의 재무행동과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도 및 재무상태평가지표 수준도 재무목표 설정과 관계가 있다는 부분도 확인되었다.

제 2 절 가계의 재무상태와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 평가

1. 가계의 재무상태평가지표 준거기준 충족수준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2]에 대해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충족 수준을 평가하고 가계가 현재 재무상태에 맞게 재무목표를 설정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8가지 재무상태평가지표 중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재무상태지표는 평균 4.66개로 나타났다 <표 4-4>. 5가지 지표를 충족한 가계가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6가지 지표를 충족한 가계가 19.6%, 4가지 지표를 충족한 가계는 19.0%를 차지했다. 8가지의 지표를 모두 충족한 가계의 비중은 2.7%에 불과하였다.

<표 4-4> 준거기준 충족 재무상태평가지표 개수

지표 충족개수	0	1	2	3	4	5	6	7	8	평균
빈도	1	37	89	168	235	316	242	116	33	4.66
(%)	(0.1)	(3.0)	(7.2)	(13.6)	(19.0)	(25.5)	(19.6)	(9.4)	(2.7)	

<표 4-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상태평가지표 및 준거기준과 각 지표를 충족한 가계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8개의 지표 중 안정성지표인 보장성보험준비지표와 부채부담지표의 충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장성보험준비지표 불충족 가계(20.9%) 중 보장성보험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9.9%였고, 20%를 초과한 가계는 11%였다. 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한 가계는 85.9%였고, 이 중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75.8%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성지표인 노후대비저축지표와 투자성향지표를 충족하는 가계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노후대비저축지표의 경우 재무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준거기준인 50% 이상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 비중

지표		준거기준	충족 비중(%)			
안정성지표	균등화 중위소득	중위소득값 이상	69.1			
	가계수지지표	20대: 50% 30대: 70%	20대	59.6	30대	74.0
		40대: 80% 50대: 90%	40대	76.1	50대	79.1
		65세 이상: 95% 이하	60대	74.9	전체	75.0
	비상자금지표	20대: 2배 30대: 3배	20대	60.7	30대	56.3
		40대: 4배 50대: 5배	40대	46.7	50대	39.2
65세 이상: 6배 이상		60대	49.2	전체	48.3	
보장성보험 준비지표	0-20%	79.1				
부채부담지표	40% 이하	85.9 (부채가계 중 75.8)				
성장성지표	저축성향지표	20대: 50% 30대:30%	20대	18.0	30대	30.0
		40대: 20% 50대: 10%	40대	36.5	50대	64.3
		65세: 5% 이상	60대	67.6	전체	45.2
	노후대비 저축지표	50% 이상	28.3			
투자성향지표	20% 이상	35.3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및 저축성향지표는 연령대별 세분화된 준거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준거기준이 적용된 연령대의 충족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을 만족한 가계의 비중은 75.0%였는데, 50%의 준거기준을 적용한 20대의 충족비중이 59.6%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연령에서는 75%정도가 준거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지표는 전체 응답자 대상 충족비중이 48.3%로 안정성지표 중 충족비중이 가장 낮았다. 연령대에 따른 충족비중은 50대가 39.2%로 가장 낮았다. 저축성향

지표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45.2%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수지표와 마찬가지로 50%의 높은 준거기준이 적용된 20대의 충족비중이 18.0%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균등화 중위소득 값(2016년 기준)을 충족한 가계는 69.1%였다.

양세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후대비저축지표와 투자성향지표를 제외한 지표들의 충족 가구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채부담지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지표들은 본 연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세정 외(2013)의 연구에서는 연령 구분 없이 가계수지표는 70% 이하, 비상자금지표는 4~6배, 저축성향지표는 30%이상의 준거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보장성보험지표의 경우 8~10%로 본 연구와 상이한 준거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 평가

본 연구에서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은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라 평가하였다. 즉, 8가지의 재무상태평가지표를 통해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표와 연관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를 비교하여 다음 <표 4-6>와 같이 구분하였다. 즉 해당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유형(불충족-미설정), 미충족 지표와 관련된 재무목표를 설정한 유형(불충족-설정), 충족된 지표와 관련된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유형(충족-미설정), 그리고 이미 충족한 지표와 관련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유형(충족-설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4-6>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른 구분(1+2+3순위)

n=1,237 단위: %

재무안전성 관련 지표 및 목표				재무성장성 관련 지표 및 목표			
균등화 소득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저축성향 지표	총 저축액 늘리기		
	미설정	설정	전체		미설정	설정	전체
불충족	18.7	12.2	30.9	불충족	37.2	17.6	54.8
충족	42.9	26.2	69.1	충족	26.9	18.3	45.2
전체	61.6	38.4	100.0	전체	64.1	35.9	100.0
가계수지 지표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노후대비 저축지표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		
	미설정	설정	전체		미설정	설정	전체
불충족	17.1	7.8	25.0	불충족	29.8	41.9	71.7
충족	51.7	23.3	75.0	충족	8.3	20.0	28.3
전체	68.9	31.1	100.0	전체	38.2	61.8	100.0
비상자금 지표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			투자성향 지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미설정	설정	전체		미설정	설정	전체
불충족	35.4	16.2	51.7	불충족	44.1	20.6	64.7
충족	31.4	17.0	48.3	충족	19.9	15.4	35.3
전체	66.8	33.2	100.0	전체	63.9	36.1	100.0
보장정보험 준비지표	위험 대비 보험 보유						
	미설정	설정	전체				
불충족	16.3	4.6	20.9				
충족	57.1	22.0	79.1				
전체	73.4	26.6	100.0				
부채부담 지표	계획적으로 부채상환						
	미설정	설정	전체				
불충족	5.9	8.2	14.1				
충족	68.1	17.7	85.9				
전체	74.1	17.7	100.0				

재무목표는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정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지표를 불충족한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균등화소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를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가계는 전체 가계 중 18.7%를 차지했다. 또한 가계수지표가 충족되지 않은 가계 중 지출관리를 재무목표로 설정한 가계(7.8%)보다 설정하지 않은 가계(17.1%)가 많았다. 비상자금지표 불충족 가계 중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을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가계는 전체 가계 중 35.4%를 차지했고, 보장성보험준비 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 중 ‘위험 대비 보험보유’를 재무목표로 포함한 가계(4.6%)보다 그렇지 않은 가계(16.6%)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 중에서는 해당 재무목표를 설정한 가계(8.2%)가 미설정 가계 비중(5.9%)보다 더 높았다. 이는 부채상환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변동 등과 같은 외부적 상황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부채를 갚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축성향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 중 이와 관련된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37.2%)가 설정한 가계(17.6%)의 비중보다 2배 높았으며 노후대비저축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 중 노후자금 준비 목표를 설정한 가계의 비중이 설정하지 않은 가계보다 더 높았다. 이는 고령화 심화로 은퇴 이후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 장기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 가계 중에서 투자성향지표가 충족되지 않았으면서도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을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가계가 4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에 대한 목표설정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가계의 재무상태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로 가계를 구분하

였을 때 관련 재무목표 설정 집단과 미설정 집단의 지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보장성보험준비지표의 경우 오히려 지표 불충족 집단의 평균값이 지표 충족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지표값=0)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가계도 불충족 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재무상태평가지표에서 지표 충족 집단은 목표 설정여부에 따른 지표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7>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른 유형별 지표 평균

		지표 불충족		지표 충족		F
		목표 미설정	목표 설정	목표 미설정	목표 설정	
안정성	균등화소득 평균(만원)	112.7 a	113.0 a	430.3 b	421.8 b	212.70***
	가계수지표	2.74 a	2.50 a	0.39 b	0.38 b	70.45***
	비상자금지표	1.54 a	1.65 a	44.17 b	33.66 b	35.01***
	보장성보험 준비지표	0.36 a	0.43 b	0.07 c	0.07 c	61.89***
	부채부담지표	3.19 a	4.98 a	0.05 b	0.12 b	11.63***
성장성	저축성향지표	0.09 a	0.11 a	0.62 b	0.59 b	30.30***
	노후대비저축지표	0.12 a	0.15 b	0.67 c	0.69 c	1216.82***
	투자성향지표	0.02 a	0.05 b	0.46 c	0.46 c	1207.43***

***p<.001

지표 불충족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후대비저축지표와 투자성향지표, 보장성보험준비지표를 제외하고 재무목표 설정/미설정 집단의 지표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저축

지표, 투자성향지표와 보장성보험지표의 경우 불충족한 지표에 대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계의 지표 평균값이 더 높았다. 특히, 보장성보험준비지표의 경우 적정수준보다 훨씬 많이 보험료에 지출하고 있는 가구가 여전히 위험 대비를 위한 보험 보유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 정리하면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해본 결과, 안정성지표에서는 보장성보험준비지표와 부채부담지표의 충족비중이 높았고, 비상자금지표의 비중이 48.3%로 가장 낮았다. 성장성지표에서는 저축성향지표가 전체 가계 기준 충족 비중이 45.2%로 가장 높았고, 노후대비저축지표의 충족 가계는 28.3%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안정성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장성지표의 충족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상이한 준거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된 연령대의 준거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라 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지표의 불충족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여부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과 ‘계획적 부채상환’을 제외한 재무목표에서 설정가계보다 미설정 가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가지 유형별 지표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노후대비저축지표와 투자성향지표와 보장성보험준비지표의 경우 미설정 집단이 해당 지표값이 더 좋지 않음에도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 지표의 경우 지표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목표를 설정/미설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3 절 재무목표 설정의 부적절성 영향요인

본 절에서는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라 구분한 가계 유형 중 특정 재무상태평가지표를 불충족한 경우 관련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가계(불충족-미설정 유형)를 중심으로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과 재무행동 뿐만 아니라 각 목표별로 재무 상태에 대한 가계의 주관적 평가 변수를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8가지 재무목표 중 ‘계획적 부채상환’과 ‘위험 대비 적절한 보험 보유’의 경우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가계가 우선적으로 설정한 재무목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노후대비저축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충분한 노후자금을 가계의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가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정기적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대의 경우 은퇴나 노후준비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가계는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을 재무목표를 중요하게 설정하여 노후 준비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축을 하지 않거나 저축 금액이나 시기가 일정하지 않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자금 관련한 인식과 자신감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미설정 가계가 노후준비의 충분성이나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노후준비보다 다른 재무목표를 더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8> 불충족 재무상태평가지표 관련 재무목표 미설정 요인

불충족-미설정=1		충분한 노후자금		현재보다 소득늘리기		총 저축액 늘리기		투자 통한 자산 증식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		충분한 비상자금마련	
		N=881		N=379		N=676		N=796		N=306		N=633	
변수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03	0.97***	0.00	1.00	0.04	1.04***	0.01	1.01	-0.01	0.99	0.02	1.02*
가구주성별		-0.03	0.97	0.28	1.32	0.18	1.20	0.10	1.11	-0.31	0.73	0.14	1.15
주거형태 (자가=0)	전세	0.42	1.52*	-0.33	0.72	-0.29	0.75	-0.04	0.96	-0.45	0.64	0.13	1.13
	월세·기타	0.60	1.82*	-0.77	0.46	-0.52	0.59	0.37	1.44	-0.68	0.51	0.08	1.09
18세이하 자녀(없음=0)		-0.04	0.96	-0.28	0.76	-0.26	0.77	-0.02	0.98	-0.45	0.63	0.22	1.25
가구원수		0.07	1.07	0.01	1.01	0.12	1.13	-0.01	0.99	0.45	1.56**	-0.20	0.82*
소득 지출평가 (소득> 지출=0)	소득=지출	-0.08	0.92	0.18	1.20	0.13	1.14**	0.26	1.30	0.03	1.03	0.08	1.08
	소득<지출	0.04	1.04	0.26	1.30	0.67	1.96**	0.41	1.51*	-0.59	0.56	0.52	1.69*
정기적 저축(안함=0)		-0.32	0.72*	0.09	1.09	-0.49	0.61	-0.04	0.96	0.06	1.07	-0.11	0.90
보험유무(없음=0)		-0.17	0.84	0.63	1.87*	0.32	1.38	-0.10	0.91	0.19	1.21	0.02	1.02
월평균소비지출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ln연소득	0.03	1.03	-0.10	0.91	-0.32	0.73	-0.14	0.87	-0.20	0.82	0.15	1.16
ln총자산	-0.07	0.94	-0.10	0.91	-0.01	0.99	-0.23	0.80**	-0.02	0.98	-0.04	0.96
ln총부채	0.04	1.04	0.00	1.00	0.03	1.03	0.03	1.03	-0.04	0.96	0.08	1.08**
노후자금 충분성 인식	0.15	1.16										
노후자금 마련 자신감	-0.04	0.96										
향후 3년 소득 예측			-0.38	0.68**								
다음 달 소득 예측			0.68	1.97***								
단기적 재무목표 자금준비					-0.09	0.92	0.01	1.01				
단기적 재무안정 자신감					-0.39	0.68*	0.12	1.12				
장기적 재무목표 자금준비					0.46	1.59*	-0.10	0.91				
장기적 재무안정 자신감					0.21	1.24	-0.05	0.95				
투자성향							-0.76	0.47***				
일상 재무문제 해결 쉬움									0.15	1.16		
매월 생활비감당 어려움									-0.05	0.95		
비상자금 충분성 인식											0.09	1.10
비상자금 마련 자신감											0.08	1.08
상수	1.05		0.58		0.31		4.90***		2.70		-1.87	
-2Log 우도	1138.137		470.530		772.274		870.425		354.811		759.441	
χ^2	59.214***		34.430**		77.767***		124.941***		27.434*		28.717*	
NagelkerkeR ²	0.087		0.118		0.152		0.204		0.120		0.062	

*p<.05, **p<0.01 ***p<.001

균등화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를 재무 목표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은 가계는 보장성보험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수록, 다음 달 소득 예측이 쉽다고 인식할수록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가계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소득이 예상이 되고 향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늘리기를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창출되어야 다른 재무목표의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소득 상황이 부정적으로 예상되더라도 적절한 지출관리나 저축·투자 등을 통한 재무적 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지난 1년 소득이 지출보다 크지 않은 경우, 가계의 단기적 재무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장기적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저축성향지표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축액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먼저 높은 연령대에서 저축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미설정 한 이유로는 노후대비라는 재무목표를 더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만큼 지출하거나 소득보다 지출을 더 하는 재무행동을 가진 가계는 저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액을 늘리기를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기적으로 가계 재무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재무적 안정을 위해 저축 외의 다른 목표를 더 중요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가계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저축액을 늘리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축성향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자기과신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투자를 잘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무상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목표 미설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투자성향지표를 미충족한 가계 중에서는 소득보다 지출이 큰 경우, 자산이 적을수록,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질수록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소득보다 지출이 큰 가계는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해당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성향지표는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부담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어느 정도로 보유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투자성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73.7%가 안정지향적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어 ‘투자성향지표 불충족-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재무목표 미설정’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험을 보유하게 된다는 단점을 갖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상태와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관련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주소현 외, 2016).

가계수지지표를 미충족한 가계 중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계는 그만큼 소비지출이 높아 이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가계이고, 총 부채액이 많을수록 비상자금의 부족함에도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비상자금을 중요한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상자금지표는 일시적인 소득 중단 시 어느 정도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높은 연령대일수록 더 높은 비상자금 수준이 요구된다. 비교적 단기적인 위험으로 갑자기 큰 자금이 요구될 때 은퇴로 인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가계에서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높은 연령대의 가계에서 비상자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부채부담이나 소득 대비 큰 지출로 충분한 유동성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재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가구원수가 적어 재무적 충격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상자금 마련을

재무목표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제 1 절 요약

본 연구는 가계가 어떠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와 설정한 재무목표가 가계의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지를 알아보고,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한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목표를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가계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상태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재무목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가계가 재무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최우선으로 설정한 재무목표별로 그러한 재무목표를 설정한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한 8가지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관련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라 가계를 유형화하여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과 관련된 8가지 재무목표에 대한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충분한 노후 자금 준비를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한 가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재보다 소득 늘리기’, ‘총 저축액 늘리기’ 및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순으로 나타나 장기적이고 가계의 재무적 성장을 위한 재무목표가 단기적이고 재무적 안정성을 위한 재무목표보다 우선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경우 저축·투자보다는 부채상환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한 가계의 비중이 높았다.

최우선으로 특정 재무목표를 설정한 가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18세 이하의 자녀유무, 주거형태 및 가계 소득, 자산 및 부채와 가계의 재무행동 및 재무상태 만족수준, 재무상태평가지표가 재무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특히, 연령과 18세 이하의 자녀 유무는 재무목표 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생활주기별로 재무목표 및 저축·투자 목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소득 대비 지출, 정기적 저축 유무와 보험과 같은 재무행동이 ‘소득 대비 지출 줄이기’와 ‘총 저축액 늘리기’, ‘계획적 부채상환’과 ‘위험대비 적절한 보험 보유’의 재무목표 설정 영향요인을 도출되어 재무목표와 재무행동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대비를 위한 적절한 보험’의 재무목표를 최우선순위로 설정한 가계가 보장성 보험을 보유한 가계일 확률이 높고, 부채상환을 최우선 재무목표로 설정한 가계가 정기적 저축을 하지 않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험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과 계획적 부채상환이 중요하지만, 적정 수준을 초과한 보험료 납입과 같이 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재무적 자원을 투입하거나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꾸준히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무목표 설정과 자원의 배분 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단·장기적, 그리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재무목표를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8가지 재무상태평가지표 중 평균 4.7개의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등화소득과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보장성보험준비지표, 부채부담지표와 같은 안정성지표가 저축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 투자성향지표의 성장성지표보다 충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계수지, 비상자금, 저축성향지표는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준거기

준을 적용하였는데, 가계수지지표를 충족한 가계의 비중 중 20대의 비중이 낮은 편이었고, 비상자금지표의 경우 50대의 충족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저축성향지표의 경우 20-40대의 충족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 별로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에 필요한 각 재무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무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준비지표를 미충족한 가계는 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와 과충족한 가계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무설계 시 보장성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게는 위험대비를 위한 보험 보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가계에게는 보험 가입의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정 수준으로 보험을 보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 여부 및 관련 목표설정여부에 따라 가계를 불충족-미설정, 불충족-설정, 충족-미설정, 충족-설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충족-미설정 집단이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은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각 재무상태평가지표를 불충족한 가계가 관련 재무목표를 설정했는지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과 ‘계획적 부채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목표에서는 재무목표를 미설정한 가계의 비중이 설정한 가계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재무목표 미설정 가계는 44.1%로 8가지의 ‘불충족-미설정’ 유형 중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의 ‘불충족-설정’ 가계가 ‘불충족-미설정’ 가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부채부담지표를 불충족한 가계 중 ‘계획적 부채상환’을 재무목표로 설정한 가계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부채상환에 따른 고정적 지출 및 심리적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재무목표 설정이 불일치한 집단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불충족 재무상태평가지표 관련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

은 가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주거형태, 가구원수 경제적 특성에서는 자산과 부채, 재무행동에서는 소득·지출 평가, 정기적 저축 여부, 그리고 각 재무목표와 관련한 가계의 주관적 평가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특히, 연령은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에는 부적 영향을, ‘총저축액 늘리기’와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재무설계와 재무교육 시 젊은 연령대에게는 노후자금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50-60대 가계에는 저축과 비상자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 지출보다 큰 가계는 ‘총 저축액 늘리기’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그리고 ‘충분한 비상자금 마련’ 재무목표를 미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가계수지가 다른 재무상태와 재무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소득 대비 지출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초과한 가계가 저축액을 늘리고자 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정기적 저축을 하지 않은 가계가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가 기본적인 지출관리행동과 저축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 마련을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무적 성장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재무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상자금지표를 불충족한 가계임에도 비상자금 확보를 재무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 가계가 재무적 위험을 겪게 되었을 때 정기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충격이 크게 나타나므로 높은 연령대 가계에게 적정 수준의 비상자금을 확보하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목표는 궁극적으로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재무목표 설정을 통해 가계는 재무설계와 재무행동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무목표 설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무상태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재무상태평가지표는 가계의 재무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가계의 재무상태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가계가 재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목표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개선·증진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 있고, 가계의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 수준은 가계가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를 평가하는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중 주목할 부분은 가계가 주로 저축과 투자 및 노후자금 준비와 같은 장기적인 재무적 성장을 추구하는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무상태평가에 따르면 재무적 안정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는 가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취약한 가계의 경우 무조건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재 재무상태를 유지·개선할 수 있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과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재무적 위험을 경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 재무의 기반을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소득수준, 가계수지, 비상자금, 위험대비를 위한 보장성보험 준비, 부채부담 수준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준거기준이나 가계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적정 수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적 안정을 위한 소득과 지출관리 및 계획적 부채상환, 위험 대비를 위한 비상자금과 적절한 수준의 보험 보유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현재의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상태 평가는 재무목표 설정 및 재무관리 전략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가계 특성별로 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수준이나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가계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재무설계와 재무목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젊은 연령대는 미리 노후자금 준비의 필요성을, 고연령 가계는 단기적 재무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불충족-미설정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과 금융역량을 갖춰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가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무목표 설정에 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족생애주기와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무행동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인식이 재무목표 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행동에서 소득·지출 평가와 정기적 저축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 재무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지출관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계수지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관리의 재무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최재경, 2013). 또한 현재 재무상태에 대한 인식 또한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재무상태 평가와 더불어 가계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객관적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주관적인 재무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설계와 재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재무목표의 설정 여부에 대한 가계의 특성을 규명한 본 연구에서 나아가 각 재무목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계획 및 실천 수준에 대한 변수 등을 고려한다면 가계 특성 별 재무목표 설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무목표의 경우 기존의 저축·투자목적과 달리 가계 재무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소득, 지출, 위험대비 및 자산증식 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으나, 각 재무목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한계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 대비는 모든 가계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추구하는 목표지만, 계획적 부채상환은 부채를 보유한 가계에 한해서만 설정하게 된다. 또한 대비 지출 줄이기는 다른 재무목표의 수단으로서 설정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재무목표로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재무목표 적절성 평가를 위해 재무상태평가지표 충족여부와 재무목표의 설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비재무적 목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 목표 설정의 기간과 각 재무목표의 단계 및 가계의 비재무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무목표의 구분 방식을 정교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상태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평가하였을 때, 재무상태가 좋은 가계 중에서도 재무적으로 불만족하는 가계도 있고 반대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주관적으로는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Baek & DeVaney, 2004). 가계의 투자성향이나 세부적인 재무상황에 따라 가계 별로 더 중요하게 설정해야 할 재무목표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재무비율의 충족수준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의 재무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재무상태 평가 방식이 제안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은 평가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을 달성한 후 성장을 추구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재무목표 설정 순서의 큰 틀은 제시하였으나, 가계의 재무상태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 어떤 재무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재무적으로 취약한 가계를 대상으로 어떠한 재무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어떠한 재무적 요소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다면, 가게가 올바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적으로 재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가게의 재무상태를 개선·증진할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계선자, 정미선(2007).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 및 재정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123-144.
- 고보선, 임정빈(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59-77.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민정, 이희숙(2009).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와 객관적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47(1), 25-43.
- 김순미(2014).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27-52.
- 김정숙(1996).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2), 245-259.
- 박근주, 이기춘(2002).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의 특성. *소비자학연구*, 13(1), 45-73.
- 배미경(2007). 가계의 전반적 재무상태 측정 및 재무비율 영향요인 분석, *과학논집*, 33, 67-81.
- 백은영, 문숙재(2005).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본 가계의 재정목표, 문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6(2), 87-109.

- 범수인, 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17.
- 성영애, 공은희(2007). 저축목적에 따른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18(2), 103-124.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손지연, 박주영(2016). 가계부 기록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113-128.
- 안승철, 김년희(1999).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 관련요인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7), 111-125.
- 안종범, 전승훈(2006).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가구주 및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 *공공경제*, 11, 123-149.
- 안창희, 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 안창희, 정순희(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21-41.
- 양세정,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 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여운봉(2014). *가계의 재무상태와 위험감수도가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관심도와 재무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교 박사논문.
- 여운봉, 박현숙(2014). 개인의 재무목표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무역연구*, 10, 549-568.
- 오종윤, 최현자(2012).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1), 1-32.
- 오현숙, 양완연(2011). 가계금융투자목적의 결정요인 분석,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3(3), 1445-1457.
-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1997). 소비자재무설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1), 133-146.
- 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성영애(2009). *소비자재무설계 2판*. 서울: 학현사.
- 이주영, 심원술(2006). 목표설정이론의 특성이 목표관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평가와 보상의 신뢰성을 조절변수로-, *인력개발연구*, 8(2), 111-136.
- 정미선, 계선자, 강혜경(2008). 도시주부 가계재무관리행동의 변화지향성에 따른 가계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91-403.

-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2), 115-130.
- 조동필, 양세정, 배미경(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33-348.
- 조혜진, 김정현(2013). 중고령 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재무건전성,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5-71.
- 조혜진, 장연주(2015).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 비교 연구: 목표설정 (goal setting), 계획 (planning), 자기과신 (overconfidence) 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8, 199-222.
- 조혜진, 최재경. (2015). 저축 및 투자목적과 금융자산선택 간의 관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119-153.
-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동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6.
-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 김소연(2016). 소득계층별 재무상태 비교 및 Financial Fitness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9(2), 1-38.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재경(2013). 정성적인 자료를 활용한 재무설계 사례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99-126.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허경옥, 전미영, 이수현(2015). 가계재무관리자의 계획성과 안정추구성이 가계경제예측과 가계재무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35-61.
- 허경옥, 한수진(2005).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13-629.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6), 157-171.
- 국민일보(2018.01.10), “보험 너무 많이 드는 한국인... 소득 18% 이상 붓는다”.
- 통계청,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한국고용정보원, 2015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Baek, E., & DeVaney, S. A. (2004). Assessing the baby boomers' financial wellness using financial ratios and a subjective measur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2(4), 321-348.
- Boston College Center for Work & Family (2011). *The MetLife Study of Financial Wellness Across the Globe* : A look at how multinational companies are helping employees better manage their personal finances.

- Cai, Y., & Yang, N. Y. (2012). Financial goal clarity and risk tolerance: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Consumer Interests Annual*, 58, 1-4.
- Delafrooz, N., & Paim, L. H. (2011). Determinants of financial wellness among Malaysia worker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24), 10092.
- DeVaney, S.(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Garman, E. T., & Fogue, R. E. (1995).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Rice, A. S., Tucker, S. M., & Nickell, P. (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 Rutherford, L. G., & Fox, W. S. (2010). Financial Wellness of Young Adults Age 18-30,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8(4), 468-484.

- Stawski, R. S., Hershey, D. A., & Jacobs-Lawson, J. M. (2007). Goal clarity and financial planning activities as determinants of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4(1), 13-32.
- Xiao, J. J., & Noring, F. E. (1994). Perceived saving motives and hierarchical financial ne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1), 25-44.

Abstract

A Study on

Financial Goal Setting and

Appropriateness of Households

Jiyun Lee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ouseholds carry out a variety of financial activities and have different portfolios to achieve their financial goals.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in-depth study of financial goals of the households in that the start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in households is the setting of the financial go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households have set financial goals priorities, and to determine whether households has set the goals appropriately. This will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to enable households to set desirable financial goals to improve their financial status.

In this study, the financial goal is defined as ‘the criteria for financial planning and financial behavior for household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This study examines how households set

financial goals for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and uses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s as framework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goals.

The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is to examine how households set financial goal prior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goal priority. [Research Question 2] is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household financial goals setting based on whether the household is satisfied with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s. [Research Question 3]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that have set their financial goals improperly, that is, those who did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s but did not set financial goals. In order to conduct the research,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Consumers Financial Health Research in Korea'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confirmed that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s could be a useful framework for evaluating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specifying the financial goals that household should set based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and assessing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goals.

Secondly,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financial goals setting priorities, many household set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goal to prepare sufficient retirement funds. In addition, the households were primarily setting financial goals for financial growth rather than short-term goals for financial stability. However, for households that are not financially stabl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financial goals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present financial situation first, rather than pursue financial growth.

Thirdl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 and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goals setting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according to the top priority financial goal sett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presence of children under age 18, house type, income assets, liabiliti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household's financial situation have different effects on each financial goal respective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s, each age group has different indicator with a lower level of satisfaction.

Fourthly, households a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depending on their satisfaction with each financial status evaluation indicator and their financial goal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household financial goals. With the exception of financial goals "sufficient funds for retirement" and "planned debt payment",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ose financial goals have not been set up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ose financial goals are set. This means that households that fail to set appropriate financial goals are significan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financial education on proper financial goal sett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so that systematic financial planning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can be achieved and financial portfolio that achieves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can be constructed.

Lastly, financial behavior such as assessment of their income·expenditure and regular saving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household financial goal setting. In order to achieve financial goals, it is necessary to strive for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base

on spending management and saving behavior in order to meet the household balance and prepare for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rawn.

Firstly, a variety of studies on financial goal setting are needed because financial goals of the household determine the direction of financial planning and financial behavior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considering the level of awareness and practice of financial goals.

Secondly, in-depth discussion of household financial goals is needed. In this study, household financial goals were defined with a focus on stability and growth of household finance and corresponding financial goals were studied. However, as financial goals are se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and non-financial goals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e concept of financial goals and the method of division should be refined.

Thirdly, various financial status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proposed to enable households to make easier and more accurate assessment of household financial situation and to set appropriate financial goals accordingly. In addition, research is also need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financial goals to provide guidelines for setting desirable household financial goals.

Finall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plan and launch financial products considering various financial goals of the household. If financial education that meets the financial goals set by the household is implemented in academic and business field, the effect of education will be enhanced.

keywords : financial goal, financial goal setting, financial goal appropriateness, financial status, financial ratio

Student Number : 2016-21686